

獨語獨文學科의 課題와 改善案

車 鳳 禧

(韓神大 獨語獨文學科)

I. 머리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학과별 교육과제」란에 게재될 「독어독문학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원고 청탁을 받고 필자는 개인적인 차원 — 건남대학 및 한신대학 독어독문학과에서 이루어진 경험 — 에서만 이 주제를 다룰 수 없고, 또 현실(Wirklichkeit)의 인식은 경험사실 구성적인 파악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경험사실 구성적 문예학(Empirische Literaturwissenschaft)’¹⁾의 입장에서, 현재 대학에서 독어독문학을 강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문의하는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시도했다.²⁾ 시간적인 제약과 연구 부족으로 설문지 자체가 방법, 기술 및 표현 전달의 면에서 여러 가지 미비점을 안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매일 강의에서 부딪치는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 <한국에서 독어독문학을 어떻게 연구하고 가르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토론의 계기를 마련해 보려는 의도에서였다.

본고에서는 주제를 ‘연구와 강의’로 국한시켜, 응답자 58명이 제시한 자료 — 교과과정, 과 운영, 과 시설, 도서실 등에 관한 136개의 질문 — 중에서 이 주제에 해당되는 설문만을 채택하

여 연구와 강의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집약하고, 응답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종합해 보며, 이것을 참조하여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를 공동 토론의 테마로 제시해 보고자 했다.

서술방식에 있어서는, ‘대학교육’이라는 공동 관심사를 주제로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책의 ‘내용’을 조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심리학·사회학적 조사가 지향하는 (통계 결과에 의한) 객관적인 인식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개개 특수한 경우를 강조하여 가능한 한 설문지에 나타난 대로 (“—”식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이 설문지의 결과는 현행 독어독문학과 전체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으로 보기에는 힘들겠지만, 이러한 현황 보고가 앞으로 보다 더 확대된 연구를 위한 조그만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II. 현황의 문제점

1. 독문과 지망 동기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독문학 연구 및 강의의 방식에 만족하십니까?>(교 64번)³⁾에 응답한 58명 중에서 6명만이 “만족한다”고 대답했을 뿐이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38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다(Vgl. Ja: 10%).⁴⁾ 이러한 불만족도는 학생측에서도 마찬가지

지라고 교수측에서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독문과 공부에 일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교 128번)에 대한 응답 중 “학생들은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전체의 78%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교 130번)에서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전체의 71%나 된다(Vgl. Ja: 16%).

이와 같은 교수측에서의 불만족도는 현황에 대한 학생측에서의 평가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 하고 있는 독문과 공부에 만족하는가?>(학 30번)⁵⁾에 응답한 100명의 학생 중 65%가 “만족하지 않다”고 답하고 있다(Vgl. Ja: 33%).

위 몇 가지 통계결과로 미루어, 현행 독어독문학과 학생이나 교수는 현황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족도는 한국에서 독문학이, 다시 말해 대학에서의 독문학이 정체되어 있거나 후퇴하고 있다는 상황 평가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의 독문학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교 105번)라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6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있으며(Vgl. Ja: 26%), <한국의 독문학이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교 105번)에서는 69%가 “그렇지 않다”고(Vgl. Ja: 17%) 대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체나 퇴보’의 여부는, 몇몇 응답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독문학 연구의 목표 설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겠지만, “더욱 큰 발전을 위해서 바꾸어야 할 점들이 있으나, 현재의 상황이 부진하다고 보지 않는다. 물론 퇴보라는 것은 없다”는 어떤 응답자의 코멘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질문에 Ja 또는 Nein 을 표명했던지 어떻든간에 거의 모두가 보다 더 발전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방향에 쏠려 있음은 틀림없다. 이 점은, 설문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교 106번)에 응답한 72%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대답한 사실에서도 명백해진다(Vgl. Nein: 7%).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현황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우선 설문 64번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대학의 독문학에서 가장 큰 불만족의 원

인은 ‘학생들의 지망동기(Motivation)’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독문과 졸업 후의 취직전선에 대한 불안이 매우 커서 독문학 공부에 의욕을 상실하고 있음”과 같은 응답에서 볼 수 있듯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38명의 대부분이 이와 비슷하게 “학생들의 수준, 독어 실력, 자발성의 결여”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데서 비롯되는 “독어 및 독문학을 강의하기 위한 기초강의(또는 전공강의) 시간수 부족, 따라서 교수 부족” 등이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한편 “해석에만 치중하는 강의의 피상성과 지루함” 또는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끌어 나가는 교수의 유도 부족” 등으로 강의 방식도 문제시되고 있다. 몇몇은 “학생과 교사의 수준” 또는 “교수진의 자격” 등으로 교수의 수준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교수진내에서의 공동작업 부족으로 인한 “개별 강의 주제 및 내용 등이 상호 연관성 없이 분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현상은 15% 정도의 교수들이 <독문학의 목표 설정> 자체를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기·목표 설정의 문제에 대한 불명확한 접근 자세”, “한국 상황을 고려한 외국어 및 외국 문학 수업에 대한 통일성 있는 구상의 결여”, “학생들의 독어능력 등의 전제 조건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이에 따른 교과과정, 교수법의 개발”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 밖의 원인으로는 “학문을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점”, “현실감각 부족으로 사장되어 버린 문학”의 수업 등 독어독문학의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적실성(Relevanz)의 결여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교 130번)에 표현된 불만족의 이유에서도 동일하게 집약되고 있다. “지망동기와 의욕 부족”을 20%가 언급하고 있으며, 이 문제점과 관련되어 학생들의 수준, 실력, 노력, 성의 부족(응답자의 27%), 취직문제와 결부된 의욕 상실(11%)이 지적되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자발적이며 독자적인 학습태도 부족”이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너무나 외우는 학습태도에 고정되어 사고를

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학습하지 않고 시험공부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한국 교육제도의 희생물!), “우선 텍스트 읽기가 부족하고 단편적인 지식을 유기화시키지 못하여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교수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기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등.

여기서 불만족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학생들의 독문과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Vgl. 교 133번: <독문과 학생들 중에서 몇 %가 a) 독문학에 b) 독일어에 c) ……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1> 교수측에서의 추산 (단위는 %)

독문학에		독일어에	
관심 있는 학생수	응답자 평가	관심 있는 학생수	응답자 평가
0~10	30*	0~10	35*
11~20	11	11~20	11
21~30	18	21~30	9
31~40	0	31~40	0
41~50	7	41~50	11
51~60	2	51~60	0
61~70	0	61~70	2
71~80	2	71~80	2
무응답	31	무응답	31

* 응답자의 1/3정도가 학생들의 성취 의욕을 10% 미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표-2> 학생측에서의 추산 (단위는 %)

독문학에 (Vgl. 학 87번)		독어에 (Vgl. 학 84번)	
관심 있는 학생수	응답자 평가	관심 있는 학생수	응답자 평가
0~10	6	0~10	5
11~20	13	11~20	8
21~30	25*	21~30	23*
31~40	2	31~40	2
41~50	18	41~50	18
51~60	3	51~60	3
61~70	8	61~70	4
71~80	4	71~80	8
81~90	4	81~90	4
91~100	1	91~100	3
무응답	16	무응답	22

* 학생측 응답자 중 1/3 이상이 자기 반 학생들의 관심도를 30% 미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 자신에게 <독문학에 관심이 있는가?>(학 44번)고 묻는 질문에서는 66%가 “그렇다”고 대답하고(Vgl. Nein: 24%), <독일어에 관심이 있는가?>(학 66번)에서는 85%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Vgl. Nein: 7%). 이러한 높은 비율의 관심도는, 앞의 객관적인 판단과는 달리, 독문과에 들어 온 이상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müssen’에서 나온 일종의 正答式의 대답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다.

2. 독어독문학의 목표 설정

한국에서 독문학 연구의 필요성(Vgl. 교 23번)은 전체 응답자의 83%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생측에서는 <한국에서 독문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가?>(학 63번)에 38%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다(Vgl. Nein: 55%). 한편 <Deutsch als Fremdsprache 강의의 필요성>(학 67번)에는 69%가(Vgl. Nein: 26%)가, <한국의 정신적·사회적 발전을 위한 독일 문화 전달의 필요성>(학 64번)에는 46%(Vgl. Nein: 41%)가 수긍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독문과 공부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교 132번)를 묻는 설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교수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의 기대는 첫째로 “졸업장과 취직”(응답자의 52%)이며, 그 다음이 “독일어 실력 신장”이다(36%).⁶⁾ 이것은 <학생들이 독문과 공부에 대한 바람이나 의견을 표현합니까?>(교 129번)의 설문에서 나온 결과와도 일치된다. “그렇다”고 대답한 30명 교수 중의 1/3이 “직업전선에서의 기회, 사회에서 실용적인 독일어 습득”을 언급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로는, 교수측의 생각과는 달리, 학생측에서는 독문학의 필요성(Vgl. Ja: 38%)보다는 독어의 필요성(Vgl. Ja: 69%)을 더 느끼고 있으며, 이것도 대부분 졸업 후의 진로를 위한 의도에서다.

교수와 학생들간에서 독문학에 대한 기대의 차이는 앞에 언급된 현황의 불만족의 원인인 ‘지망동기’에 연루되고 있는 것 같다. 또는 대학과 교수의 근본 이념이자 과제인 “Einheit von Lehre und Forschung”⁷⁾ 및 한국의 특수 상황에서의 “독어독문학 교육의 학문성과 직업성”⁸⁾의 문제

에 결부시켜 해명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설문에 응한 교수나 학생이 동일한 대학의 동일한 학과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일치시켜 추산해 볼 수 없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한국사회’라는 동일한 현장에서 나온 반응이란 의미에서 학생측의 견해는, 예를 들어 <독문학의 필요성>에 대한 한국 사회에서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뭏든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과 교수 양쪽의 성취 욕구와 그들이 처한 현실 상황은 대학교육의 목표 설정의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교수측에서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의 기대(Vgl. 교 132번)나 바램(Vgl. 교 129번) (예를 들어 주로 “Gute Berufschance”)은 학생들 자신이 직접 대답한 내용에서도 거의 일치된다. 예를 들어 <왜 대학에 다니고자 합니까?>(학 20번)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한 개 이상 선택의 여지가 주어진 설문=Mehrfachnennungen).

- | | |
|----------------------|-------|
| a) 학문에 대한 흥미 | 30(%) |
| b) 대학 졸업 후 보다 나은 직업을 | 39 |
| c)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에 | 3 |
| d) 분명한 직업 목적이 있기에 | 14 |
| e) 결정 | 5 |
| f) 그 밖에 | 4 |
| g) 무응답 | 1 |

“f) 그 밖에”에는 “인적 수양”, “넓고 큰 인간이 되기 위해”, “좀더 배움의 과정”, “청소년 교육에 봉사” 등이 언급되고 있다.

<왜 독문학을 공부합니까?>(학 22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고 있다(Mehrfachnennungen).

- | | |
|--------------------------------------|------|
| a) 대학 졸업장을 갖기 위해서 | 4(%) |
| b) 독문학에 대한 관심 | 30 |
| c) 독일어에 대한 관심 | 27 |
| d) 독일에서 공부하고 싶기 때문에 | 8 |
| e) 분명한 직업 목적이 있기에 | 6 |
| f) 내가 원래 공부하려 했던 과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 23 |
| g) 무응답 | 2 |

반면에 교수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독문학의 목표 설정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에서 독문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수측에서는 <어떤 형태

로 (in welcher Form)?> (교 23번)라는 물음에 “해당 한국 독문학자들이 한국에서의 독문학 연구의 적실성(Relevanz)과 형태(Form)의 문제를 함께 해명해야 한다”는 응답을 비롯해, 주로 “학문 자체로서의 독문학”이 언급되고 있다. 여기엔 “① 순수 독문학 연구로서 ② 비교하는 형태로서”라는 응답에서 볼 수 있듯이, “Deutsch als Fremdsprache 및 독문학 연구”, “한국 문화와 관련지어면서 한국 문화(또는 문학)에 기여” 등의 방향 자체가 제시되고, 몇몇은 “인문과학의 한 분야로서 독문학의 필요성”에 근거, 의식 있는 현대인, 참다운 문화인, 대학 지성인을 육성하는 형태”로서의 독문학을 언급하고 있다.”

<독문학 연구란 무엇인가?>(교 118번)에 응답한 26명의 기념 규정을 그 빈도 수에 따라 차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 문학 연구로서의 독문학”(독문학 연구·이해·소개 및 독일학, 독일어권의 문화사, 독어학, 문예학, 문학연구, 문학사와 해설, 문학 작품·문학 이론 강독과 논문 발표 및 경험 지식 교환 등). 혹자는 “① 독어: 언어, 독문화, 문학을 다루는 외국어 문학(Fremdsprachenphilologie)으로서 ② 문예학과 언어학: 이 전공분야 전반에 걸친 연구 대상으로서”¹⁰⁾라고 정의하고 있다.

둘째, “독문학 연구로서 한국 문학에 기여” 세계, “독일의 정신, 문화, 문학, 관습, 인간, 역사, 민족성”등 이해

셋째, 주체적인 학문관에 의거한 독문학관¹¹⁾ 등 한편 <한국에서 독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leisten)?>(교 36번)에서는 응답자의 42%가 “한국 문화 또는 문학에 기여”를 표명하고 있다. 지면 관계상 수많은 사항을 다 열거할 수 없지 단, 주로 독문학 연구를 통한 “상호 문화교류”, “독문학의 수용과 한국 문학의 소개”, “독문예학(특히 문학연구 방법론)의 적용”, “비교문학 연구로 국문학 발전에 기여”, “한국인의 의식변화에 기여” 등이 언급되고 있다.

종합하여, 독문학의 개념 규정(Vgl. 교 118번)은 <외국 문학·문화 연구로서의 독문학>, 그 형태에 있어선(Vgl. 교 23번) <한국 문학과 연관

된 독문학 연구), 그 기능면에서는 (Vgl. 교 36번) <한국 문학(문화)에의 기여>가 목표 설정의 주된 방향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현행 교과과정에 준해 다음 3분야별로 강의의 목표 설정을 살펴보면,

1) 독어 강의 (Vgl. 교 37번)

응답자 43명의 대부분이 독해력, 회화, 작문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엔 독일어 지식, 독문화 이해, 문학의 전달(“Vermittlung d. Deutschkenntnisse, Deutschlandkunde u. Literatur”)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응답에서 볼 수 있듯이 ① 의사표현(실용회화) ② 문학 작품 이해 ③ 전공연구 목적 ④ 독문화(정신) 이해 ⑤ 한·독 양국 문학의 수용과 소개 등이 의도되어 있고, 혹자는 이러한 목적의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인성 함양의 의미에서 “상호 행위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문학 강의 (Vgl. 교 45번)

응답자 38명의 목표 설정의 내용을 그 빈도수에 따라 차례로 정리해 보면,

첫째, 독문학 이해(텍스트 번역 및 소개)

둘째, 독문학 작품 해설 및 문예학 이해(학문적으로 문학 작품을 다루는 방법 소개와 문학적 인식의 기능 전달로 비판력의 배양 등 2가지 방향)

셋째, “한국 문학에의 기여”

넷째, “독문학사 이해”

다섯째, “독일 문화권과 그 정신 이해”

그 밖에 “상호 문화적인 소통과 이데올로기 비판”, “자체 문화 및 상호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상호 행위 능력 배양” 등이 목표 설정으로 제시되고 있다.

3) 언어학 강의 (Vgl. 교 69번, 응답자 79명)

첫째, “언어 의미 규정”, “독어 구조 분석”, “Syntax, Morphologie...” 등 전문적인 연구

둘째, “독어사 변천 과정 이해” 등 독어사 중심적인 일반적인 연구

셋째, “외국 이론의 수용·비판·적용” 등으로 언어학 이론 연구

넷째, “독어·한국어의 언어 체계 비교에 의한 논리적 사고”, “비판적 언어의식 배양의 학습”

그 밖에 “합리적인 연구방법, 추상적인 사고, 논리성의 강화; 독일어의 기능 방식의 통찰 전달”, “역사적 통시적 연구 방법에서 공시적 연구 방법으로 방향 전환”, “문예학의 기초 학문 및 보조 학문으로서의 언어학”, “기초 지식을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다른 전공분야에 연계되는 강의로서의 언어학” 등이 언급되고, 혹은 “Germanistik 범주에서 독자적인 언어학 강의가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3. 현행 강의에서의 문제점

1. ‘지방동기’의 문제점에서 다양하게 언급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행 강의의 중점을 묻는 설문을 중심으로만 극히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1) 독어 강의 (Vgl. 교 42번, Mehrfachnennungen)

응답자 45명 중 1/3 정도가 독어 강의 방식의 중점을 “d) 문법 지식 전달, 이해력 신장(강독), 청취·회화 능력 신장 등이 3가지를 동시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 2절의 목표설정에서의 ①, ②, ③ 항의 의도에 일치되고 있으며, 다만 ④ 항(“독문화 이해”)의 실행 여부는 이 설문에서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d)에 “dazu auch Landeskunde”라고 주석을 달음), <강의 프로그램에 Deutschlandkunde가 들어 있습니까?> (교 50번, 응답자 43명)라는 설문의 결과 (Ja: 40%, z.T.: 17%)로 미루어 보아 현행 강의에서 Deutschlandkunde를 어느 정도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독어독문학과 교과과정 현황 분석에서 “전공 학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독일 문화를 너무 소홀히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¹²⁾ 평가는 이번 설문지 응답자의 반응에 일치되지 않는다. 이것은 예를 들어 「독문화 이해」라는 강의 목적은 교과목의 강의에서만이 아니라 독어 강의에서 또는 다른 강의에서 아니면 어떤 다른 형식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 밖에 초보자에게선 d)에, 3·4학년에서는 “상호 행위적인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 강의로서의 독어 강의”¹³⁾가 언급되고 있다.

2) 문학강의 (Vgl. 교 53번, 48명 응답, Mehrfachnennungen)

47%가 “e) 강독·해설, 해설·문학사를 동시에”, 19%가 “a) 문학 텍스트의 강독과 번역에”, 12%가 “f) 문학 이론과 문예학적 방법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g) 그 밖의 중점으로” “Themenarbeit, Gruppenarbeit, Diskussion” (2명), “한국 문학과의 비교”(1명)가 언급되고 있다.

19%의 a)는 제 1절에 언급된 현행 강의의 문제점인 “해설에만 치중하는 강의의 피상성과 지루함”을 반증하고 있으며, e)의 56%로 보아 <문학 강의의 목표 설정>에 언급된 첫째, 둘째의 목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셋째의 목적(“한국 문학에의 기여”)은 전혀 도외시되고 있고, 둘째 목적(“문예학”)의 경우 목표 설정에서 강조된 데 비해 f)의 12%는 약소한 편이다. 한편 <문학이론 또는 문학 연구방법론이 강의 프로그램에 들어 있습니까?>(교 51번)에 나타난 결과(응답자 44명, Ja: 59%, z.T.: 34%)로는 상당수가 문예학 입문을(앞에 언급한 Deutschlandkunde의 경우와 같이 교과목 강의와는 별도로) 현행 여러 가지 문학 강의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목표 설정에서 차지한 비중을 고려해 교과과정 구성 계획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¹⁴⁾ 그 밖에 중요한 문제점은 현행 강의에서 불만족의 원인으로 대두된 그리고 목표 설정에서 강조된 ‘자발성·사고력·비판력을 신장하는’ 토론 및 Themenarbeit 형식의 문학 강의는 현행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¹⁵⁾

3) 언어학 강의(Vgl. 교 72번)

<언어학 강의를 a) Sprachwissenschaft로서만, b) 문예학적 방법론으로, c) 위 두 관점에서 하십니까?>(Vgl. 교 72번)라는 질문에 14명의 응답자 중 b)에 중점을 둔 1명(독일인 응답자)을 제외하곤 모두 a)에 치중하고 있다. 이것은 문예학 강의에서 언어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가를 묻는 설문(교 73번)에서도 마찬가지로 7명이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그 중 2명만이 언어학 전공자인 것으로 보아, 현행 언어학 강의는 문학 강의와 연계되지 않고 전혀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¹⁶⁾

이상에 제시된 현행 강의의 문제점은 독문과

의 중요한 핵심체인 학생측의 견해가 빠져 있기 때문에 현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못되며, 더우기 일방적으로 교수측에서 설정한 강의 목적에 준해 관찰했기 때문에, 생산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엔 미흡할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학생측의 기대와 현실을 감안한 강의 목표 및 교과과정 구성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이러한 개선 방향을 위해 우선 현황을 살펴보면, <교과과정 구성(Entwurf)에서 학생들의 기대나 의사가 반영되었습니까?>(교 62번)하는 질문에서 14%의 교수만이(Vgl. z.T. 5%)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 한편 학생측에서는 <강의 계획 및 구성에서 학생들의 욕구와 바람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학 99번)에 61%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으며¹⁷⁾ (Vgl. Ja: 25%), <강의 계획 및 구성에 의사가 반영되기를 원하는가?>(학 98번)를 묻는 질문에서는 71%가 “그렇으면 좋겠다”고 답하고 있다(Vgl. Nein: 25%). 이에 대한 이유로는 주로 “학생들의 관심, 수준, 능력, 의견을 고려해야 하므로”, “학생들과의 의사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훨씬 좋은 현상을 보일 수 있다”, “참여의식 고조”, “능동적이어야만 일에 흥미를 갖고 책임을 질 수 있다” 등이 표명되고 있다.

II. 개선방향(Verbesserungsvorschläge)

1. 독문과 교수들의 공동 연구 작업

앞에 언급한 바, 응답자의 72%가 무언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교 106번)에 60%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Vgl. Nein: 9%). 독문학 연구의 방향 개선(Vgl. 교 67번)에 대해서는 48%가 찬성하고 19%가 반대하고 있다.

방향 개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 a) 독문학 연구에 있어서: “비상관적인 독일식 독문학의 모방 대신에 자립적인 외국어 문학으로서의 독문학 지향”, “독문학자로서 또는 교수로서의 학문적 수준과 의식”, “새로운 조류에 맞추어 나가야 함” 등을 제안하고,
- b) 강의에 있어서: “해설 위주 강의 지양”, “교사의 수준 검토(Niveau d. Lehrer prüfen)”,

“적은 수로 높은 질(입학 정원제)”, “학생들의 관심(취직)과 무관한 교과과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Vgl. 교 67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제안되고 있다.

첫째, 독문학 연구의 방향 개선에 관해 공동 연구 및 토론¹⁸⁾

둘째, 한국 문학에의 기여¹⁹⁾

셋째, “보다 나은 인류 이해와 문화 이해를 위한 상호 국제 문화적인 활동”(“국제 문화적인 상호 행위의 장소로서의 문학”)

네째, 연계학문적(학제성)인 자제의 독문학 연구 등

이와 같은 개선방향은 <독문학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해야 합니까?>(교 107번, 35명 응답)의 설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60%가 “교수들의 공동 연구”를 제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 ‘Germanistik’의 전제를 명확히 분석하고, 연구에서도 이 전제로부터 시작,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공동 작업”, “문제점의 발로와 비판 활동의 적극화”, “독문과 운영과 강의방식에 관한 의견 교환”, “지역적으로 가까운 교수들이 공동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 마련부터 시작한다면”, “대학내에서 그리고 대학을 넘어서 타 배학과의 공동 작업”, “대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 토론” 등으로 다양하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제안은 “학생들의 관심, 욕구, 문제의 실제적 내용을 파악하는 자세”(inhaltliche Orientierung) 또는 “성인 중심의 교육을 위한 방법론(methodische Ausrichtung)”이다. 그 밖에 교수와 학생의 질적·양적 개선, 독일 원서 다량 확보, 교수 연구생활 보장, 독어독문학과에 알맞는 표준 교과과정, 한국 문학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독문학 연구, “한국의 공동 중앙도서관 설립(예를 들어, 대구나 대전에)” “모든 공적이거나 사기업 사원 채용에서 제 2 외국어 응시 기회를 넓혀 줘야 함. 특히 국가기관에서 독어 등 제 2 외국어를 필수로 채택해야 함” 등이 제안되고 있다.

2. 강의의 개선방안²⁰⁾

1) 독어 강의

59%는 현행 강의가 다르게 변화되어야 한다(Vgl. 교 65번, Nein: 17%)고 생각하고 있으며, 첫째로 독어 강의 시간수 확장,²¹⁾ 둘째로 독어 강의의 양적·질적 향상 및 가능하면 독일인이 강의 담당, 셋째로 실용회화, 실제성에 중점을 둔 독어 강의, 네째로 독어 강의의 교재 및 방식 변경, 다섯째로 “현대적인 방법론, 교수법을 충분히 활용하는 독어 강의”(“Audio-lingual Methode의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2) 문학 강의

현행 문학 강의의 개선에는 45%가 동의하고(Vgl. 교 66번, Nein: 26%) 그 중 26명이 제안한 개선책은, 첫째로 “해석(번역) 위주의 강의 지양”(그 밖에 “너무 문학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코멘트), 둘째로 문학 작품의 해설 및 주제 토론 형식의 문학 강의, 셋째로 학생들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문학 강의²²⁾, (그 밖에 “세미나 형식의 강의” 언급), 네째로 “한국 문학과의 연관성하에서의 독문학 강의” 등이며, 그 밖에 “한국 독문학자들간에 문학 강의 개선에 관한 철저한 토론이 요청됨”, “참고도서가 번역되어 학생들이 보다 자율적인 발표·탐구를 통해 수업이 진행되었으면” 등이 언급되고 있다.

3) 언어학 강의

현행 언어학 강의 개선을 느끼는 사람은 응답자 58명 중 21명으로 그 중 11명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론적인 강의보다는 실천·실용적인 관점에서”의 강의²³⁾

둘째, 외국 원서 번역 위주가 아니라 이해 도모를 위한 수업

셋째, “한국에서는 언어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다”, “일괄적인 필수 선택에서 벗어나 이 분야의 집중적인 연구 요망”

네째, “한국의 독어학 전공자들은 독문학 전공자와 함께 작업해야 한다.”²⁴⁾

그 밖에 “회화 중심적인 작업의 신장”, “교수 수준의 검토” 등이 언급되고 있다.

3. 공동 연구주제 제안

지금까지 제시된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을 참조하여 한국에서의 독어독문학 연구와 강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제안해 볼 수 있겠다.

- 1) 한국 사회의 현실성에 입각한 독문학 연구
 - ① 새로운 학문적인 동향을 주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독문학 연구 방향 모색
 - ② ‘해석학적 이질성(Hermeneutische Andersheit)’에 의거, 독일 본토의 독문학 연구 및 한국 문학 연구에 기여하는 길
 - ③ 한국 문학과 연관된 독문학 연구의 방안
 - ④ 자체 문화적·상호 문화적 차원(intraund interkulturelle Ebene)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독문학 연구
- 2) 한국 사회의 현실성에 입각한 독문학 연구의 방향에 일치되는 강의
 - ① 학문성, 직업성뿐 아니라 인성 함양(Förderung der Persönlichkeit) 중심적인 외국어 및 외국 문학 수업
 - ② 독일어 및 독문학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독문학 공부에 필수적인 독일어 습득을 위한 ‘독어 강의’의 활성화 방안
 - ③ 상황·참여자 중심적인 교육자세(Situation und Teilnehmerorientierung)에 의거, 학생측의 능력, 수준, 관심, 욕구 등이 반영되는 교과과정 및 강의(주제, 내용, 방식,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④ 사고력, 비판력, 자발성, 상호 행위능력을 키워 주는 강의형식 및 교수법 개발

이러한 연구 주제는, 한국의 독어독문학과 교수들이 함께 이에 관해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에서의 시도, 즉 수정·보완을 거쳐 계속되는 새로운 시도의 경험들을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대학교육의 목표 설정과 교과과정은 유연성을 지닌 채 개방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

<註>

- 1) 「문학사상」, 1985년 1월호, 필자의 “S.J.Schmidt 교수와의 인터뷰” 참조.
- 2) 「독일문학」의 KGG 회원 명단(1984년 5월)을 중심으로 59개의 대학에 120개 가량의 실문지를 1984년 10월 17일 발송했고 12월 3일까지로 (33개의 대학으로부터) 58명이 응답했음. 이들은 대부분 서독에서 공부한 현직 대학교수들로, 문학 전공 44명, 어학전공 11명, 기타 전공 3명임.
- 3) ‘교’는 학생 설문과 구분하기 위한 표시.
- 4) 지면관계상 통계 결과를 다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예를 들어 이 경우 무응답: 22%) 반대 의사 참조시 이런 식으로 표시.
- 5) 무작위로 선발한 독어독문학과 학생 100명(2개의 국립대에서 30명, 2개의 사립대에서 70명)을 상대로 1984년 11월 시행.
- 6) 그밖에 “삶, 현실, 미래에 대한 남독 해명 가능성”, “문학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이해”, “좋은 성적 이외에 모두 불분명한 기대이지만, 여대생들은 존재 문제에 대한 Lebenshilfe 비슷한 어떤 것을 문학에서 기대하고 있고, 요즘 와서는 자신들의 정신적인 주변 세계를 논할 수 있는 보조 수단으로서 학문적인 방법론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 같다.”
- 7) Wilhelm von Humboldt에서 비롯된 19C 독일 대학의 이념인 “연구와 교수”의 주제는 변화된 사회 속의 대학에서는 성찰의 대상이 되었고, 서독의 Germanistik 분야에서도, ‘70년대의 새로운 시도들 비롯 현재도 계속 토론·연구되고 있음.
- 8) 박환덕·고영석: “독어독문학 교육의 학문성과 직업성”, 『고등교육 개혁사업』 중 「대학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Ⅵ)」, 문교부 교육정책심의회 고등교육분과위원회편, 1980, S. 42~44 참조.
- 9) 그 밖에 “보다 진지한 형태로서의 독문학 및 학회 활동”, “실제적인 형태로”, “독문과 학생에게 독문학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서적 소개·번역·스스로의 작성을 통해서 제공”, “정보교환이 가능한 연구소 형태”, “그룹 프로젝트”, “Seminararbeit” 등 언급.
- 10) Vgl. Edeltrud Kim: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¹⁾ *Neue Ansätze zur theoretischen Fundierung einer Germanistik als Fremdsprachenphilologie*, 「독일문학」, 제23집, 1979, S. 85~109 참조.
- 11) 예를 들어 “독문학이 우리를 함을 위해 갖는 새로운 의미 발견을 계속 탐구하는 작업, 인간 해방을 지향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기능수행”, “인간과 나 자신의 탐구라는 인본적인 추구방향(형태)을 나타내 보이교자 한다”, 또는 “Analyse des Interaktionsfeldes dt. Literatur im Rahmen von Aktionsforschung” 등.
- 12) 박환덕·고영석: a.a.O., S. 50.
- 13) Projektunterricht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테마를 잡고, 관심 있는 테마에 따라 Arbeitsgruppe 구성, 그룹별로 한 학기 동안 작업하고 학기말에 자

- 기 상이한 수단으로 기록·발표된다”고 설명됨.
- 14) 예를 들어 「현대 어문학교육의 방법론적 연구」(중남대 인문과학연구소 편, 1984. 8)의 독어독문학과 모델 교과과정에서 독문학분야(50%)에 “독문예학 3-3-0, 독문학 비평 3-3-0”이 주어져 있음(S. 242).
- 15) 이러한 형식의 문학 강의를 시도한 어떤 응답자는 “강의에서 ‘수동성’을 더 좋아하는 학생측으로부터 ‘거부 반응’ 같은 것을 느낀다. 학생들은 주입식 교수방법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은 강의에서는 대부분 불안스러워 하고 또 강의를 피한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텍스트 읽는 강독식의 강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경험담을 피력하고 있으며 또는 “Projekt 강의 형식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성과에 만족하지만 재래식 독어 강의 경우에선 만족할 수 없다”고 수업방식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의 문제도 언급되고 있음.
- 16) 본고 제 2 장 제 2 절 및 주 24) 참조.
- 17) 학생측에서는 예를 들어 “너무 반응이 안 된다”, “이초에 대화조차 없다”, “사전 질문이 도대체 없으므로”, “수업방식은 대개 교수 일방적이다”, “학생들의 바람보다는 교수의 계획에 의해서인 것 같다”, “강의 계획에 앞서 교수님과 이야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바람, 실력, 욕구 등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음”, “교수의 독단에 의한 프로그램보다 장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등을 언급.
- 18) 여기엔 “ein richtiges Teamwork in jeder Hinsicht”, “이 방향의 전환에 관한 세부적인 토론”, “한국 독문학자간에 이 주제에 관한 철저한 토론”, “한국 독문학에 관한 방법론·교수법 토론”, “같은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세미나 개최 후 결과물 총회에서 발표·연구 등 다양한 활동” 등이 요청·제안되고 있다.
- 19) 여기엔 “독문학 연구는 한국과의 연관성에서(또는 “한국 상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독문학 연구는 한국 문학을 장려(또는 “Z.B. 문제 제기 및 연구방법을 통해 한국 학문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한국에서의 독문학이 지닌 Erkenntniswert 와 Orientierungswert 에 대한 연구”, “자국 문학에로의 교량 역할”, “독일 문예학적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
- 20) 강의 개선 방향에 대한 학생측에서의 요구 사항은 지면관계상 여기서 다루지 못함.
- 21)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지만 주로 학점과 관련 없는 훈련시간 확보, 능력에 따른 반 편성으로써 어학 수업의 적극화가 강조됨.
- 22) 여기엔 “학생들의 토론은 독자로서의 학생 참여에 의해 수행된다”, “문학 강의가 현실성을 지닐 수 있도록”, “문학 강의의 목표, 내용, 방식은 학생들의 욕구, 문제점, 관심, 실제(직업 또는 그들이 해 나가야 할 일상의 삶)와의 연관성하에 이루어져야 함”, “문학 강의하는 교수 자신이 현대적인 文學觀을 가져야 하고, 학생들에게 문학 특유의 현실인식의 기능을 경험하게 하는 문학수업” 등이 언급되고 있다.
- 23) 예를 들어 “① 단계 : 이론보다 연습, ② 단계 : 독어·한국어 언어체계 비교를 통해 논리적인 사고 방식 신장”, 또는 “1학년에서는 실제에 관련된 강의, 그 후에는 이론에 관련된 강의” 등이 언급됨.
- 24) '70년대에 이루어진 서독의 새로운 문예학 이론은 모두가 '60년대 말 새로운 언어학적 Ansätze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의 서독 문예학 이론의 수용은 언어학자와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대학에서의 언어학 강의는 문예학 이론과 병행해야 할 것임.